

OSHRI Newsletter

No.28

December 2016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소식지

안전보건
단신

■ 해외수출지원을 위한 「안전인증제도 국제세미나」 개최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인증센터는 11월 4일(금) 서울 소재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국내 방호장치·보호구 및 S마크 안전인증 대상품 제조업체의 해외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안전인증제도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국내 안전인증 제품의 세계시장 진출에는 필수적으로 국제 안전인증 취득지원이 요구되며, 국내 업체에는 이러한 국제 안전인증 취득이 무역장벽 요소로 작용하는 등 관련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국내 방호장치·보호구 및 S마크 안전인증 대상품 제조업체의 국외 수출을 돕기 위해 지난 6월 일본 성능검정 취득지원 세미나에 이어 중국 등 수출 주요국가로 확대하여 인증기관 전문가를 초청, 국내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인증 제도와 인증취득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TÜV SÜD에서 유럽 CE 인증제도, SGS Korea에서

러시아 CU 및 GOST 인증제도, TÜV Rheinland에서 중국 보호구 및 CCC인증제도에 대해서 발표했다.

특히, 발표자와 참석자간 상호토론 방식으로 세미나가 진행되어, 국내 업체의 현실적인 애로사항 등에 대하여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는 등 해외수출이 확대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었다.



2016년 안전보건 이슈리포트 Vol.10 No.4 발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2016년 11월 15일(화) 올해 4분기호(Vol.10 No.4 통권 제73호) 「안전보건 이슈리포트」 발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안전보건 이슈리포트의 발행취지에 적합한 시급성·중요성이 있는 산업안전보건문제에 관한 이슈원고 「안전보건 공시제도 도입의 선결조건」 등 5건을 발행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안전보건 이슈리포트」는 2016년 3월 30일 1분기호를 시작으로

매 분기마다 발간되어 현재 4분기호(2016.11.29)까지 발간되었으며, 산업안전보건연구원(<http://oshri.kosha.or.kr>) 안전보건이슈리포트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6년 제5차 안전보건정책 연구포럼 개최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보건정책연구실은 10월 21일(금) 서울 세계화연구소에서 안전보건전문가 12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6년 제5차 안전보건정책 연구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날 포럼에서는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의 박종식 박사가 2015년도에 실시된 산업안전보건동향조사의 데이터를 이용한 ‘근로자 참여 및 의사소통과 안전보건활동’이라는 연구주제로 발표하였다. 상대적으로 재해의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이라고 해도, 안전보건위원회나 노동조합과 같은 직장 내 의사결정 활동에 근로자가 참여하는 수준이 높으면, 안전보건활동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노동자참여가 적극적일수록 안전보건교육, 서비스제공, 의사소통, 심리사회적 위험대응과 같은 지표도 동일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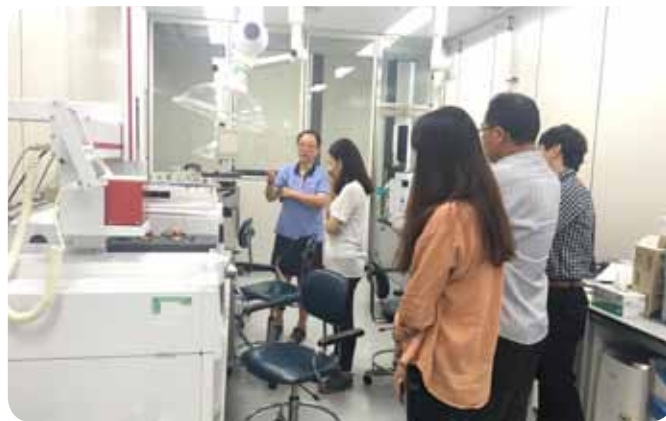
이 연구결과는 근로자의 경영참여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보건위원회나 노동조합의 참여수준을 확대시키는 것이 안전보건측면에서 더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로 평가되었다.

특수건강진단기관 신규분석자 교육 실시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건강연구실은 특수건강진단기관 분석정도관리사업과 관련하여 생물학적 노출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신규분석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전국의 신규분석자 5명이 참가한 이번 교육에서는 생물학적 노출평가 기초이론을 비롯하여 분석정도관리 실무,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 활용법 등에 대해 교육하였으며 연구원의 실험실 견학 기회도 제공하였다.

신규분석자 교육을 통해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전문성을 유지 및 강화하고 근로자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직업환경의학회 가을학술대회 참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건강연구실은 11월 3일부터 5일까지 강원도 하이원리조트에서 개최된 제57차 대한직업환경의학회 가을학술대회에 참가하였으며, 학술대회와 함께 공단의 직업환경의학 전공의들의 임상연수교육도 실시하였다.

학술대회에 참가하여 직업건강연구실에서 수행한 다양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성과를 전파하여 학회 회원들과 정보를 교류하고, 직업환경의학분야의 최신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관련 분야 선진기술을 습득하는 기회를 가졌다.



16년도 하반기 산업보건분석 전문가 교육 실시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환경연구실은 11월 17~18일 이틀간 충남 예산에서 「16년 하반기 산업보건분석 전문가교육」을 실시하였다.

전국산업보건분석협의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교육은 작업환경측정·분석능력 향상을 주제로, 측정기관 및 특수검진기관 분석자 등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교육에서는 ‘직업병 발생현황, 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평가, 건설현장 용접흡 노출 실태 등’ 다양한 주제의 세미나와 작업환경측정 정도관리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실시되었다.

이번 교육은 작업환경측정 분석자들의 분석·측정 능력 향상과 작업환경측정 관련 정보를 적극 공유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다.



소식·동정

UNIST 재학생 초청 연구원 견학 및 세미나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연구실은 11월 4일(금) 정부3.0 국정 목표 중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찾아가는 서비스” 핵심과제 달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UNIST 재학생 초청 연구원 견학 및 산업안전보건관련 세미나 강연 실시로 정부운영 패러다임 정부3.0취지에 부응하였다.

또한, 울산 소재 UNIST와 소통과 협력의 기회를 통하여 미래의 주축 세대들에게 산업안전보건 가치와 산업안전보건공단 역할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안전문화 정착과 공단 위상 도모에 기여하였다.

금번 UNIST 재학생 초청 연구원 견학에서는 KOSHA 홍보관 및 연구원 실험실 대상 투어를 실시하였으며, 동시에 공단의 청렴활동 소개 및 청렴 이미지 제고를 위한 청렴 캠페인도 병행 실시하였다.

연구원 분야별 실험실 견학에 이어 이관형 연구위원이 “산업재해 통계의 이해와 활용” 주제로 세미나 강연을 하였으며, 강연 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하여 연구원의 역할과 기능 등에 대해서 설명이 이어졌다.



지역사회 소외계층 「안전쉼터 가꾸기」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건강연구실은 11월 8일(화) 울산 중구종합사회복지관의 장애아동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쉼터 조성 및 안전보건교육활동을 실시하였다.

장애아동도 사용하기 편한 투척형 소화기 및 분말소화기, 비상조명등, 의료구급함 등을 설치하고 위급상황시 대처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사회적응프로그램도 지원하면서 장애아동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지역사회 취약계층 대상 의료봉사 실시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건강연구실은 10월 20일(목) 울산 중구 소재 북정경로식당에서 무료급식소를 이용하는 독거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전문 의료인의 의료 지원활동을 통해 재능나눔을 실천하였다. 혈압 및 혈당 검사를 비롯하여 의료상담 및 가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일반의약품들을 지급하였으며, 배식봉사도 함께 진행되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울산으로 이전한 이후 매년 지속적인 재능나눔을 실천하고 있으며, 추후에도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나눔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청렴 민관협의체 간담회 개최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환경연구실은 11월 17일(목) 충남 예산에서 「청렴 민관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원장, 직업환경연구실 실장 및 보건분석 협의회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협업을 통한 청렴활동 추진 논의와 정도관리 현장평가 업무관련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작한 「청탁금지법」리플렛을 홍보물로 제작하여 산업보건분석 전문가 교육을 위해 모인 분석자들에게 배부하였다.

직업환경연구실은 앞으로도 청탁이 없는 건전한 공단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명사초청 특강 개최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환경연구실은 11월 28일(월) 울산 대학교 철학과 이상엽교수를 모시고 특강을 실시하였다. 이번 특강은 “우리 시대의 예술과 삶의 미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직원 소양 증진 및 조직 활력 제고를 위하여 실시되었다.

강의는 인문학의 기원 및 필요성과 예술사에 관한 내용으로 약 두 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또한 자본이 주가 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지역사회 취약계층과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 실시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인증센터는 10월 12일(수) 어깨동무 지역아동센터 방문 및 10월 19일 울산 장애인 체육관 등을 방문하여 성금을 전달했다. 안전인증센터는 울산으로 기관이전 이후 지역사회 취약계층 시설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전기설비 및 시설물 안전점검 등 전략적 재능나눔활동을 통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화학물질독성연구실 청렴인물 및 사적지 탐방 실시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화학물질독성연구실은 11월 22일(화)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 소재 우암사적공원을 방문하여 송시열 선생이 후세에 남긴 교훈을 되새기고 직원의 청렴의지를 복돋우기 위한 사적지 탐방을 실시하였다.

우암사적공원은 조선 후기 대유학자인 우암 송시열 선생이 학문을 닦던 유서깊은 장소이며, 현재는 1만 6천여평에 장판각, 유물관, 서원 등의 건물을 재현해 1998년에 사적공원으로 새롭게 탄생하였다. 또한 이곳에는 선생이 말년에 제자를 가르치고 학문에 정진하던 남간정사, 건축미가 뛰어난 기국정, 송시열 문집인 송자대전판 등 역사적으로 중요한 문화재가 보존되어 있다.

문화해설사는 “김장생과 그의 아들 김집에게 성리학의 예학을 배워 기호학파의 일가를 이룬 그는 여든세살 되던 해 사약을 받기까지 900여명에 달하는 제자들과 함께 정국을 주도하였다. 사후 송자(宋子)라 칭해지며 주자에 비견될 만한 성현의 반열에 올랐다”고 하면서 “그의 청렴정신은 그가 중시한 예학의 기반이다”라고 강조하였다.

